

금년에 처를 17대 대선에는 시장 재직 당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종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인사가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로 나서고 있다. 또한 특정 종교의 성직자 한 분은 시민정치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정치세력의 대표로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치열한 세력경쟁을 보이면서도 한민족 특유의 상생과 조화의 정신 속에서 지켜온 절묘한 종교간 균형과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치는 권력, 부, 명예 등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를 다룬다. 가치가 공평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가치배분에 있어서 특정 집단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자기 종교를 최상의 것으로 믿는 종교집단 중에서 특정한 종교를 정치가 지원하게 되면 그 사회의 평화는 지켜지기 어렵다. 그래서 현대 국가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중요



불자 세상보기

정 천 구
영산대 교수

‘정교분리’와 대선주자들

한 요소로서 종교적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개인의 종교 활동은 종교의 자유에 속하지만 공직자로서 특정종교 편향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종교와 정치의 분리 정신에 위배되며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자유와 함께 무신앙의 자유, 다른 종교에 의해 강제 받지 않을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 근대 국가의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는 인류 역사의 경험과 인권 사상의 발

전에서 정립된 것이다. 인류 역사는 종교가 정치에 지배할 때도 반대로 정치가 종교를 지배할 때도 인류의 불행함을 경험하였다. 서양은 종교가 정치 위에 군림하던 중세 1000년의 암흑시대를 경험하였으며 정치세력화한 종교 간의 투쟁으로 유럽을 황폐화시켰던 30년간의 종교전쟁을 치루고 나서 근대 민족국가를 탄생시켰다. 또한 정치가 사상과 종교를 지배하던 파시스트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폭력과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정치와 종

교와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때는 인도의 아소카 대왕의 치세였다. 당시 왕은 불교를 신봉하고 그 이념을 국가정책의 기본으로 삼았지만 종교적 관용을 지점으로 삼아 다른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존중하였다. 전통시대 중국에서도 주자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기에 따라 유교, 또는 불교가 지배적인 국가이념이 되었어도 종교적 관용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주자학이 지배한 조선조에서 불교는 500년 동안 멸시와 억압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정교분리원칙이 깨지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가 정치를 장악할 경우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종교는 바로 불교일 것이다.

인간 영혼의 구제를 담당하는 종교의 영역과 권력을 배경으로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배분하는 정치의 영역은 서로 다른 것이며 두 영역이 공적 영역에서 분리되어 각 부분이 자신의 몫을 다할 때 건전한 사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다종교 소량생산사회, 다종교 다문화 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서 사상과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을 지키는 일은 종교간의 평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며 다종교 사회에서 모든 종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불자의 눈

국보 제126호인 석가탑 출토유물을 종단으로 돌려 달라는 조계종과 난색을 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조계종은 3월 26일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에 맞춰 열리는 전시회에서 석가탑 출토 유물 일체를 공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전시 3일전인 23일 현재까지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물을 제외한 출토유물은 반환하겠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이 전달 됐으나 조계종은 '일괄반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줄다리기는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선 조계종의 입장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이 근본부터 다르다는 점을 짚어 봐야 한다. 조계종은 석가탑 출토유물의 원래 소유주는 조계종이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 보관 했던 것임을 내세운다. 이제 불교중앙박물관도 문을 열게 되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생각은 다르다. 조계종 소유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크기는 국민의 문화유산이고 보존 시설이나 안전성 면에서 더 안심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연구와 보존을 이유로 조계종으

석가탑 출토유물 일체

‘반환 원칙’ 먼저 지켜져야

로 돌려주는 것을 꺼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논리에 수긍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가 기관에 위탁 보관되어 온 문화재는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소유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처사가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이는 조계종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점이기도 하다.

불교중앙박물관의 보존처리나 학예 시스템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비해 수월한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모든 불교문화재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도 있다. 연구 대상으로서의 유물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종교성을 두고 볼 때는 조계종의 입장이 흐려져선 안 될 것이다.

입장차이라는 것은 양측이 다 양보심을 발휘하면 더 좋겠지만 어느 한쪽이 자세를 낮출 때 극복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먼저 자세를 낮추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물을 포함한 출토유물 일체를 조계종에 반환하여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게하고 다시 수탁하여 연구 활동을 하는 방향을 잡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조계종으로 반환한 것이 되고 보존과 연구 활동도 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다 목적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차체에 조계종도 집안을 보다 확실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역할과 가치를 심본 살려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불교문화유산들을 수장하고 전시 하는 것이 불교중앙박물관의 근본적인 역할이다. 박물관은 수장고 보존처리 전시기획 등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들이 뒷받침 되어야 체 기능을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려하는 이 분야에 대한 조계종의 대책이 보다 명쾌하게 나온다면 앞으로 '반환'을 둘러싼 갈등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4. 광신적 전도, 종교성 없어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수년 전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연인간의 종교 갈등'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 연인 10명 중 4명 꼴로 종교 갈등을 경험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종교 문제로 헤어졌다고 나타났다고 발표할 적이 있다. 특이할 점은 종교 갈등이 주로 불교와 기독교 사이 (47%)에서 있었다는 점이다. 불자로서 우리 사회의 종교간 불화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예일대를 졸업하고 숭산 스님을 만나 한국선불교를 접한 후 승려가 된 '만행-허버드에서 화제사까지'의 저자 현 각 스님이 지하실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 기독교인이 다가와 '예수 믿으세요. 부처는 사탄입니다. 왜 기독교나라에서 온 당신이 머리를 깎고 마귀의 종교를 믿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현 각 스님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라고 답해 주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그렇게 응대 했더니 어지간히 짜증스러웠나 보다. 어떤 스님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천당 갈 수 없어요" 하는 말에 "관상을 보니 하나님이 천국에 빨리 데려갈 상이군요.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먼저 가지요" 하고 비꼬아 질겁하고 사라지게 했다고도 한다. 또 어떤 이는 금강산 신계사 주지스님께 "신계사가 전장 때 폭격으로 소실된 것은 신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긴 승복을 입은 스님들에게까지 무례하게 전도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오죽할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시도 때도 없이 집집마다 초인종울 울려 논쟁하러 들기도 한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 준다는 호의이거나 선교 훈련의 일종인지 모르겠으나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가실지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타인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그나마 이런 정도는 무지하고 몰상식하기는 하나 순진하다 할 수도 있다. 타 종교인에 대해 분명한 증오심을 보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부간에도, 가족 간에도 지나친 종교 강요나



동국대체불모습

이 아닐 수 없다. 80년대엔 자정 전적승려였다든 사람들 앞세워 불교비방 집회를 하거나 신문광고를 내는 등 자극적 도발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불교행사 안내지나 플래카드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몇 해 전 내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불교 동아리에서 현 각 스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교내에 붙여진 수십 개의 안내문이 하루만에 모두 떼어 없어져 활동했던 기둥도 있었다. 사찰이나 불상에 빨간 페인트로 철을 하거나 십자가를

무례 넘어 공격적인 전도행위 지양...존중·이해 필요

전도 때문에 파란에 이르기기도 한다.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지나쳐 어린 학생들에게 '불교는 마귀의 종교'라고 가르치거나 불교집인의 학생에게 "사탄을 믿는 아이"라고 낙인찍어 따돌리기도 한다.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아이의 상처는 어 더 전 날 이교도에 의해 불교방송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충격이었

그어 놓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어디 그런인가. 아예 내놓고 공격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심신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불상의 목을 자르거나 사찰 방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1990년 세계 최초로 불교방송이 개국된다고 하여 불자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개국 바로 전날 이교도에 의해 불교방송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충격이었

가 높을 때는 항상 불행했다. 종교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지닌 가장 고귀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쓰는 측면이 있는 한편 인간의 진인성을 거러김 없이 배출해온 측면도 있다. 그래서 종교인은 항상 '다른 것'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충동을 이기기 위해 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종교의 이중성에 대해 늘 되돌아 볼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었던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흥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8-8413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이전 제대로 알아!”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글쓴이 / 일광(逸廣)

신국판 / 312쪽 / 9,500원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유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